

지시사 대조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onstratives: based on Korean, English, Spanish and Russian text

김명자* 채숙희* 조은영*
(Myungja Kim) (Sookhee Chae) (Eunyoung Cho)

요약 본 연구는 지시사가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개체를 대용하여 지시하는 문맥지시의 경우에 각 언어별로 어떠한 지시사가 사용되며, 어떠한 언어 요인에 의해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구문 / 의미 / 화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언어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용적 용법에 있어서 영어와 서반아어에서는 근칭 / 원칭 지시사가 직시적인 용법에서의 의미를 비교적 유지하면서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좀 더 자주 사용되는 형태와 그렇지 못한 형태의 무표 / 유표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렇듯 상이한 분포양식을 보이는 지시사 대용적 용법을 선행사와의 거리, 인지상태, 심리적 거리감, 담화구조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비교, 대조 분석함으로써 각 언어의 지시사의 유형론적 의미를 모색한다.

Abstracts This paper deals with the anaphoric usage of demonstratives when they refer to what are already mentioned in the context. We examin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hoice of demonstratives. As for anaphoric usage, English and Spanish show the even distribution between proximal and distal demonstratives with the meaning of their deictic counterparts. Korean and Russian, however, show the uneven distribution of the more prevalent form (unmarked one) and the lesser one (marked one). This study aims at a typological explanation for the anaphoric usage of demonstratives through comparison and contrast with such factors as the distance to the antecedent, cognitive status,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center of attention.

Keywords 선행사와의 거리, 인지상태(cognitive status), 관심의 중심, 화자의 공감이입(empathy), 심리적 거리감, 관심의 이동(focus movement), 팝오프된 관심(popped-off focus)

1. 머리말

담화상에 존재하는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수단 중의 하나인 지시사의 체계는 직시성과의 일차적 연관성으로 인해 언어직관적, 비문법적 현상으로 간주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언어대조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범언어적 현상으로 일괄적으로 묶을 수도, 단순히 난립된 개별현상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한국어와

서반아어는 지시사의 삼원체제로, 영어와 러시아어는 이원체제로 대별되고 있으며, 관사가 없는 언어인 한국어나 러시아어에서 특정 지시사의 무표적 사용이 허용되는데 비해 관사가 있는 언어인 영어와 서반아어는 지시사의 사용 분포가 균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실은 지시사 사용이 문법체제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과 언표내적 범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표는 지시사의 언표적, 언표내적 사용에 대한 언어과학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상언어로 한국어와 영어 이외에 러시아어, 서반아어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들 4개 언어는 서로 어족별로 무관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유형론적 고찰을 도출해낼 수 있

* 서울대학교 / 인문학연구원
russ12@hanmail.net chae_sh@lycos.co.kr 7575vale@hanmir.c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of Humanities

으며 지시사 분포와 관사의 사용여부에 있어 언어간 균형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사의 전반적인 체계는 언어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this / that', 러시아어에서는 'этот / тот' 으로 근칭 / 원칭의 이원체계를 보인다.¹⁾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이 / 그 / 저', 서반아어에서는 'este / ese / aquel'로 근칭 / 중칭 / 원칭의 삼원화된 체계를 보인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개체를 지시하는 대응적인 용법으로서의 문맥지시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서반아어에서 도 이원화된 체계를 보인다. 즉 한국어의 지시사는 이 / 그 / 저로 삼분되지만 그 대응적인 문맥지시의 용례는 이 / 그에 제한되고, 서반아어에서는 전자 / 후자를 가리킬 때 후자를 대신하는 원칭(aquel)의 제한적 사용을 제외하고는 대응적 문맥지시에서 'este / ese'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지시사의 분포면에 있어서는, 근칭 / 원칭 지시사가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영어와는 달리 러시아어에 는 근칭지시사 'этот'이 널리 사용되고 원칭지시사 'тот'이 극히 제한되어 나타난다. 한편, 서반아어에서는 원칭지시 사 'aquel'의 제한적 사용과 대조적으로 근칭, 중칭지시사 'este / ese'의 분포가 균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에 서는 중칭지시사 '그'가 더 널리 쓰인다. 이처럼 러시아어 와 한국어는 두 지시사의 쓰임새가 유표 / 무표적인 분포 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영어 나 서반아어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분포 상의 차이는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 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지시사의 대응적 용법을 동일한 기준에 준해 비교함으로써 유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기준으로 기존 연구들의 접근법(G.H.Z.1993, Kibrik 1996, Himmelmann 1996, Halliday and Hasan 1976, Sørensen 199, Sidner 1986, Strauss 1993 등)에 준하여 선행사와의 거리, 선행사의 격, 해당 지시체의 인지상태(cognitive status), 관심의 중심²⁾, 화 자의 관점입(empathy) 등의 구문 / 의미 / 화용 기준을 설정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과적으로 지시사 용법의 언어별 특성을 밝힘으로써 통번역과 같은 언어간의 의사 소통시 각 언어에 맞는 지시사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그 실

용적인 의미를 달성할 것이고, 중국적으로는 한국어의 유 형론적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2. 구문적 특성

지시사의 대응적 용법과 관련된 구문적 특성으로는 선 행사와의 거리나 선행사의 격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시사 의 원래 직시의미는 언어에 따라 선행사와의 거리를 통해 대응적 용법에 투영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1 선행사와의 거리

선행발화에 선행사 후보가 둘 이상 나타남으로써 그 지 시관계가 모호한 경우 지시사는 자주 대응사로 사용된다. 이때 지시사는 선행사 결정(antecedent resolution)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그 선행사와의 상대적 거리에 준해 선택됨으 로써 유사 직시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예로 선행 사가 모호할 수 있는 맥락에서 영어의 'this'는 후자를, 'that'은 전자를 나타냄으로써 'this'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대상을, 'that'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시사의 특성은 한국어나 러시아어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러시아어에서는 선행사 결정과 관련해서 선행사 거리가 선행사의 격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은 것으 로 나타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어에서 'this / that'은 각각 후자 / 전 자에 상응하여 선행사와의 상대적 거리로 차별화되고 서 반아어의 지시사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거리로 선 행사의 모호성을 해결한다. 즉, 선행사들 사이에 전자 후 자의 대응이 분명할 때 서반아어에서는 근칭(este)-원칭 (aquel)이 '후자-전자'에 해당되어 영어의 'this-that'에 상응 한다. 단 'aquel'은 이 경우에만 'that'에 상응하고 나머지 경우는 중칭 'ese'가 'that'에 상응된다.³⁾ 아래의 예에서 보 듯이 'aquel'은 전자를, 'este'는 후자를 각각 지칭한다.

3)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ese'는 'aquel'로 대체될 수 없다.

El día 14 una mujer veinteañera perdió la vida en medio de una operación de liposucción. Según la policía, la mujer entró en el quirófano a las 4 hs. de la tarde de ese día.

14일, 한 20대 여성이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 여성은 그날 오후 4시에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렇듯 서반아어에서는 전자-후자의 대응을 제외하면, 이전 담 화에서 선행사가 존재할 때 'aquel'은 대응사로 쓸 수 없다. 이 밖에 지시대상이 불특정한 경우에("aquellos que suspendan en junio deberán presentarse de nuevo en septiembre." "6월에 탈락 하는 사람은 9월에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도 aquel을 사용 하지만 본고의 논의 초점인 대응사적 용법과는 거리가 있다.

1) 지시사는 크게 그 형태에 준해 지시대명사(pronominal demonstrative)와 지시형용사(adnominal demonstrative)로 나뉘는데 그 대응적 용법에 있어 지시형용사는 한정지시표현의 한 유형으로 개체를 지칭하는 지시표현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지시대명사는 앞선 발화 전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문에서는 주로 지시형용사의 대응적 용법을 다룬다.

2) 이러한 개념이 Strauss(1993)에서는 referential focus, Sidner(1986)에서는 focus, 중심화이론(centering theory)에서는 center로 표현되어왔는데, 본고에서는 특정한 이론과는 무관하게 '관심의 중심'으로 이 개념을 표현하기로 한다.

1.

-Juan y Pedro no se entienden porque éste no es de izquierdas. (éste=Pedro)

후안과 페드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Juan y Pedro no se entienden porque aquél no es de izquierdas. (aquél=Juan)

후안과 페드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영어나 서반어와 달리 지시대명사가 정확히 전자·후자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한국어 예의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의사는 철수에게 목례를 하면서 그를 보지 않고 민수를 보았다. 그 사람은 / 이 사람은 의사가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 민수(9/16), 철수(4/16), 철수>민수 (1)

철수=민수(2)

이 사람: 민수(14/16), 철수(0), 민수>철수(2)

위의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대상, 즉 민수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역시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민수’를 지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지시사 ‘이 / 그’가 선행사와의 상대적 거리감에 준해 차별화되지 않는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선행사가 모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민수/철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어는 언뜻 보기에는 ‘этот / тот’이 각각 ‘전자 /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선행사의 거리에 준해 그들 간에 일관된 상응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Skipač raz prišjol k kastratu. On / этот byl bednjak, a tot (kastrat) bogač.

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내시에게 왔다. 그는 / 그 남자는 가난했지만 다른 남자는 부유했다.

K kastratu raz prišjol skipač. On / *этот byl bednjak, a tot (Kastrat) bogač.

내시에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왔다. 그는 / 그 남자는 가난했지만 다른 남자는 부유했다.

S этим Kočkorbaevym otnošenija u Vostona byli počti anekdotičnye. Stol’ko let tot byl partorgom sovxoza, no Vostonu tak i ne udalos’ razobrat’sja ... (Sørensen 1992:101)

그 꼬츠크르바예브와 보스톤의 관계는 거의 일화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가 몇 년간이나 국영농장의 조직원이었는데도 보스톤은 알아채지 못했다.

위의 예에서 ‘tot’은 첫번째 예에서는 후자를, 두 번째와 세번째 예에서는 전자를 각각 지칭한다. этот은 첫번째 예에서는 전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올 수 있지만, 두 번째 예에서는 잘 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에 상응하는 일관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 두 예를 통해 확인된 것은 ‘tot’의 선행사가 주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세 번째 예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세번째 예에서 ‘tot’은 ‘Voston’이 아니라 ‘Kočkorvaev’를 지칭함으로써 그 선행사가 상대적으로 멀리 있고 비주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선행사 후보가 여럿 있어 모호할 수 있는 경우에 선행사의 거리가 지시사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면 그 지시대상이 선행발화에 바로 언급되어 선행사가 확실한 경우에 지시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한국어 예는 ‘이 / 그’가 어떤 용법상의 차이를 갖는지를 알려준다.

4.

그러나 탄닌 성분은 점막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변비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도토리를 재료로 하여 만든 식품으로 우리는 흔히 도토리묵을 떠올리지만 이것 뿐만이 아니다. \도토리 껍데기를 벗겨 물에 오랫동안 담가 뽕은맛을 뺀 다음 잘 말려 가루를 낸다. \그 가루로 죽을 쑤면 도토리죽이 되고 가루로 떡을 만들면 도토리떡이 되고, 밀가루와 섞어서 도토리국수를 만들며, 꿀에 재어서는 도토리마시, 묵을 만들면 도토리묵이 되는 것이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비 (大妃: 先王의 后妃)가 수렴 청정하는 법제를 악용하여 대비와 결탁하거나, 대비의 문중 (門中)이 나서서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즉 순조의 왕후 순원이 안동 김씨로서, 이들 안동 김씨의 척족 (戚族) 세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순조의 대를 이어 여덟 살에 즉위한 헌종의 왕후 효현 (孝顯)도 안동 김씨, 또 헌종의 후사 (後嗣)가 없는 가운데 열아홉 살에 등극한 철종 (哲宗)

의 왕후로 안동 김씨의 명순(明純)이 간택됨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그치지 않았다. (Kaist 한국어 corpus)

위의 예들에 대해 다른 지시사들로 대체 가능한지를 테스트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첫번째는 6명중 5명이, 두번째는 6명중 4명이 가능한 것으로 답함). 이 같은 사실은 한국어 지시사들의 용법을 선행사의 거리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서반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선행사와의 거리가 'este / ese' 선택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5에서 'este'와 'ese'는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Durante la pubertad se producen otros cambios: El estirón de talla típico de esta edad. Comienza en unos límites de tiempo muy amplios.

사춘기에 또 다른 변화들이 생긴다. 이 시기에 전형적으로 키가 자람. (키가 자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기한을 두고 시작한다.

러시아어는 선행사가 바로 앞 발화에 있는 경우에 다음처럼 두 지시사가 다 올 수 있다.

6.

Pilat nakinul kapjušon na svoju čut' lysejušuju golovu i načal razgovor. Razgovor ètot šjol po-grečeski.

총독은 약간 벗겨진 자기 머리에 두건을 쓰고는 대화를 시작했다. 이 대화는 그리스어로 진행되었다.

Džo sobral gostej po slučaju 25-letija supružeskoj žizni. Priglašennye šumno veselilis' i ne zametili otsutstvija vinovnika toržestva. Tol'ko ego lučšij drug Frènk spoxvatilsja i stal iskat' ego v raznyx komnatax. On obnaruzil Džo v biblioteke. Tot sidel pered pustoj butylkoj viski i gor'ko plakal.

조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 초대된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유흥을 즐겼고 정작 그 모임의 당사자가 부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그의 절친한 친구 프랭크만이 눈치를 채고는 여러 방을 다니며 그를 찾아 다녔다. 그는 조를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그 사람은 빈 위스키병 앞에 앉아서 슬프게 울고 있었다.

위의 예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특히 두 번째 예는 'tot'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행사 거리만의

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선행사 결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위의 예들에서 첫번째 예는 선행사 후보가 될 수 있는 대상들이 복수이긴 하나 각각 활성화 / 비활성체(prokurator / razgovor)로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선행사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두번째 예는 선행사 후보가 Džo와 Frènk로 둘다 활성화 남성 명사로 선행사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tot'은 동일한 범주의 대상들이 선행사 후보로 공존하여 선행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잘 선택된다는 것이다.

선행사가 바로 앞 발화에 오지 않는 경우에 그 대응사로 'tot'이 오는 예도 선행사의 거리로는 설명되기 힘들다. 이미 앞서 지적한 것처럼 'tot'은 일반적으로 그 선행사가 바로 앞 발화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예와 관련해 두 지시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모두 tot을 선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Sdelav nad soboj velikoe usilie, Ivan Nikolaevič podnjalsja so skamji i brosiljsja nazad, tuda, gde razgovorival s professorom. I okazalos', čto tot, k sčast'ju, eščjo ne ušjol.

Na Bronnoj uže zažglis' fonari, a nad Patriaršimi svetila zolotaja luna, i v lunnom, vsegda obmančivom svete, Ivanu Nikolaeviču pokazalos', čto tot stoit, derža pod myškoju ne trost', a špagu. (Masrter i Margarita)

이반 니콜라예비치는 아주 힘들어서 벤치로부터 일어나서 아까 교수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진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았다.

Bronaja 위로 이미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Patriarš 위에는 금빛 달이 빛을 밝히고 있었고 달빛에서 이반의 눈에는 그(교수)가 지팡이가 아니라 긴 칼을 겨드랑 밑에 차고 서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선행사의 거리는 영어, 서반어, 러시아어, 한국어에서 선행사가 모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시사의 선택을 결정하게 해준다. 그러나 선행사가 모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사로 어떤 지시사가 선택되는가하는 것은 구문적 특성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다. 특히 한국어는 선행사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구문적인 특성에 따른 특정 지시사의 선택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2 선행사의 격

이미 앞(2.1.1)에서 언급한 것처럼 'tot'은 선행사 후보 대상들 중 비주격인 대상의 대응사로 작용한다. 'tot'의 이

러한 특성은 이미 Kibrik(1996)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활성화(activation)는 크게 선행사와의 거리(물리적 / 논리적), 선행사의 구문 / 의미적 역할, 해당대상의 텍스트 내에서의 비중, 활성화의 요소들에 준해 0에서 1사이의 활성화 등급(activation score)으로 나뉘고, 'tot'은 활성화 등급이 더 높은 다른 지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0.7-0.8)의 대상을 지칭한다. 해당 예는 아래와 같다.

8.

Čerez minutu pilot zlobno vzgljanul na mexanika. Tot, blednjy, vsjo eščjo perebral instrumenty v ja ščike.

일분 후에 비행사는 기술자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 사납은 안색이 창백하여 도구들을 상자에 쟁겨넣었다.

Kibrik의 활성화 등급은 관련 활성화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연구가 더 필요하다. 특히 'tot'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지적되었듯이 선행사와의 상대적인 거리와 선행사의 격이 대응사 선택기준으로 작용하되 특히 선행사 격이 더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대상이 텍스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선행사의 격 형태와 관련해서 아래의 예는 흥미롭다.

9.

Privedjonnyj s trevožnym ljubopytstvom gljadel na prokuratora. Tot pomolčal, potom tixo sprosil po-aramejski.

끌려온 사람은 총독을 불안한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아랍어로 질문을 던졌다.

위의 예는 소설의 일부인데 주인공은 예수와 총독으로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하다. 해당 문장에서 총독을 지칭하는 대응사를 선택하려고 보니 선행발화에 총독과 예수가 다 있어 선행사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 발화에서 예수는 주격명사, 총독은 비주격명사로 나타남으로써 총독이 예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에서 총독의 대응사로 'tot'이 선택된다.

한편 한국어, 서반아어, 영어는 격이 문법 범주로 특성화되지 않는 언어로 선행사의 격이 대응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미적 특성

대용적인 지시표현은 범언어적으로 인칭대명사, 영형, 지시사(+명사), 명사 중에서 선택된다. 이 중 지시사는 인칭대명사에 비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서반아어, 일본어 등에서 한정적 지시표현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⁴⁾

Gundel, Hedberg & Zacharski (1993: 275)의 '주어집성의 층위'(Givenness Hierarchy)⁵⁾에 의하면 특정한 지시형태의 선택은 그 인지상태(cognitive status)의 차이와 Grice의 양의 격률에 의거한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 implicature)으로 설명된다. 영어의 'this / that', 서반아어의 'este / ese, aquel'은 각각 그 인지상태가 최소한 [활성화(activated)] / [친숙함(familiar)]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그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10.

<영어>

A: Have you seen the neighbor's dog?

??B: Yes, and this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B: Yes, and that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서반아어>

A: ¿Has visto el perro del vecino?

??B: Sí. Este perro me hizo desvelar anoche.

B: Sí. Ese perro me hizo desvelar anoche.

영어의 지시사 'this'는 해당 지시체가 화자 자신의 이전 발화에서 언급되는 방식으로 화자중심의 활성화(speaker-activated)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질문(A)에 표현된 개체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B)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상응하는 서반아어의 예문은 서반아어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한국어의 지시사 '이 / 그' 역시 '주어집성의 층위'식으로 보자면 영어처럼 [활성화] / [친숙함]에 준해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의해 언급된 개체를 대응해서 지시하는 경우 지시사 '이'의 사용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A: 김 박사님, 채소의 검은 무늬병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

4)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 291-292)에 따르면 영어 51/240, 러시아어 21/284, 중국어 51/240, 서반아어 12/331, 일본어 48/363 등으로 사용 빈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5) in focus > activated > familiar > uniquely identifiable > referential > type identifiable

는데요 이것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B: 네, 그 / *이 병은 주로 배추에 생기는 것인데요.
(장 경희 1980, 172)

위의 예는 대화 상대방이 언급한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인데, '그'만이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 예문을 설명하는 데에는 인지상태라는 개념이 유용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두 지시사 'ètot'과 'tot'이 모두 [친숙함]을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상태에 준해서는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문맥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12.

A: Vy videli sobaku u soseda?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 본 적 있으세요?

B: Da, èta / ta sobaka u soseda mne vsju noč' ne davala spat'.

네, 어제 밤에 이 / 그 개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처럼 러시아어에서는 두 가지 지시사가 다 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ta sobaka'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 지시사의 인지상태가 동일하여 두 형태가 다 대응사로 가능하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지상태에 준한 설명이 대부분의 언어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어 지시사의 대응적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상태 외에 다른 이론적 근거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관심의 중심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는 선행사와의 거리나 청자 활성화와 같은 구문/ 의미 특성으로는 지시사들의 대응적 용법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고, 한국어 지시사들 역시 선행사와의 거리에 준해 그 용법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특히 이 언어들에서 지시사의 용법은 심리적 거리감이나 관심의 중심과 관련된 담화구조에 준해 더 잘 설명된다. 관점이입과 담화구조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관심의 주변으로 밀려난 개체에 비해 관심권으로 새로 이동된 개체에 화자의 관점이 이입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6) 지시사가 가리키는 지시체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심리적으로 A 보다는 B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이 쓰이는 것이다.

4.1 심리적 거리감

영어의 'this / that'은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감으로 차별화된다. 'this'는 화자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 혹은 경험이나 관점이입의 측면에서 근접한 것을 나타내는 반면 'that'은 덜 가까운 것, 덜 관점이입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idner(1986)는 'this'는 주초점(main focus)을, 'that'은 예비초점 혹은 구조초점(potential or old focus)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비는 특히 대조의 문맥에서 잘 드러난다.

13.

1) I'm having a party tomorrow night.

2) It will be like the one I had last week.

3) That party was a big success, because everyone danced.

4) This one will have better food. I've asked everyone to bring something special.

5) Want to come? (Sidner 1986)

위의 담화에서 화자의 주된 관심사는 '내일의 파티'이며, '지난 주의 파티'는 전자와의 비교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도입된 개체이다. 따라서 화자의 주된 관심사는 4)에서 'this'로,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도입된 것은 3)에서 'that'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비슷한 개념들로 고초점(high focus) / 저초점(low focus) (Strauss 1993), 주요 초점(central focus) / 주변 초점(peripheral focus)(Oh 2001) 등이 'this / that'의 대응적 용법을 정의하고 있다.

화자의 관점이 명확한 글에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은 잘 느껴진다.

14.

A second wave of soldiers, including Murray, would follow, fanning out across Iraq on a different mission. Their principal task: to win over Iraqi people by handing out emergency humanitarian aid, and to unearth Saddam's presumed stockpile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se soldiers would be operating in a lawless, battle-scarred landscape in which civilians would be fearful and shell-stocked but might have information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imes 03/03/24)

위의 예문은 미국인이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자국 군인을 지칭하는 경우로 화자는 자국 군인에 대해 당연히 심리적 근접성을 보이고, 이런 이유에서 'these'가 선택된 것

로 판단된다.

서반아어에서는 근칭 지시사 'este'를 써서 화자의 심리적 근접성을, 원칭지시사 'ese'를 써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가령 아래 예문의 지난 확장시절에 대한 대화에서 어떤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근황이 문득 궁금해진 화자는 근칭 지시사를 통해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낸다.

15.

Tú, siempre con Juanito. Recuerdas que él fue tan tímido, poniéndose rojo cuando hablaba con las chicas? Y... que será de este chico ahora?"

너는 언제나 Juanito와 함께였지. 기억해? 여자애들이랑 얘기할때면 얼굴이 빨개지던 수줍은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애는 지금 뭘하고 있을까?

한편, 다음 예문은 잠재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비된 일본을 지시할 때 중칭 'ese'를 사용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16.

El presidente Roh participará en un programa de televisión de Japón para dialogar con el pueblo de ese país.

노대통령은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나라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출연할 예정이다.

중칭지시사 'ese'는 경멸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17.

No me hables de ese tonto.

그 멧덩구리 얘기 좀 하지마.

Anda, anda, véte de mi presencia con ese tío embeleco.

어라, 어라, 그 허풍선이랑 내 앞에서 썩꺼져라.

이와 같이 부정적 뉘앙스를 지닌 대상을 한정하는 표현 수단으로서 중칭 지시사를 문법화시켰다는 점이 서반아어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서반아어의 경우에 지시사의 선택은 한정사의 긍정 / 부정 뉘앙스, 즉 정서적 근접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는 '이'가 심리적인 근접성을 나타낸다. 아래의 한국어 예에서 뜻은 '저 푸른 못'을 보건대 분명 직시의미에서는 원칭임에도 그 다음 발화에서 계속 '이 못'으로 지칭되고 있다. 여기서 '이'는 대용사로 화자가 계속 그 못에 대해 얘기하면서 심리적으로 가까이 느끼고 있음을 나

타낸다.

18.

이 산등에 올라서면 용연동네는 저렇게 뻗히 들여다 볼 수가 있다. 저기 우뚝 솟은 저 양기와집이 바로 이 앞벌 농장주인인 정덕호집이며, 그 다음 이편으로 썩 나와서 양철집이 면역소며, 그 다음으로 같은 양철집이 주재소며, 그 주위를 싸고 컴컴히 돌아앉은 것이 모두 농가들이다.

그리고 그 아래 저 푸른 못이 원소라는 못인데, 이 못은 이 동네의 생명선이다. 이 못이 있길래 저 동네가 생겼으며 저 앞벌이 개간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동네 개 짐승까지라도 이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종 corpus 강경애 인간문제 창작과 비평사 1992)

위의 예에서 '이 동네'와 '저 동네'도 동일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못이나 동네는 다 직시적 의미에서는 '저'로 지칭되어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화자의 관심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그 대용사 형태로 '이'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⁷⁾

한편 위의 예들에 대해 지시사들의 치환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교체 가능성이 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관점이입에 따른 지시사의 선택이 다분히 화자의 뉘앙스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이'가 다분히 화자의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낸다면 러시아어 'tot'은 [관점이입]의 표지로 작용하여 화자로부터의 심리적인 거리를 느낄 수 있음이 앞(2.1)의 예 7, 8에서 잘 나타난다. 8에서 '그 교수'는 철저히 이반 니콜라예비치의 눈에 비쳐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는 주절 동사로 영어의 'seemed'에 해당되는 'pokazalos'가 옴으로써 그 주체인 이반이 자동적으로 관점이입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반은 동료의 죽음을 예견한 불길한 '그 교수'에 대해 상당한 적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이 바로 지시사 'tot'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tot'대신 다른 지시사로의 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에서도 모두 tot이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예문에 이미 관점이입의 구문적 표지 'pokazalos'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8은 그 선행사가 바로 앞 발화에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4.3).

앞(2.1)의 예 7은 관점이입과 관련된 'tot'의 또 다른 예로, 조는 프랑크의 관찰대상으로 화자에 의해 객관화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한편 러시아어의 'ètot'은 무표적인 분포를 보임에도 불

7) '이', '그'의 이러한 용법과 관련하여 심재기, 이정민(198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이 우리 말에서는 초연하게 또는 좀 객관적으로 앞의 것을 받을 때 그로 받고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긴밀히 끌어들이 받을 때 이를 쓴다."

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화자의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 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

Bybajut sredi nix magi, astrologi, predskazateli i ubijcy,- govoricl monotonno prokurator,- a popadajutsja i lguny. Ty, naprimer, lgun. Zapisano jasno podgovoricl raznuščit' xram. Tak svidetel'stvujut ljudi.

Èti dobrye ljudi,- zagovoril arestant I, toroplivo pribaviv- igemon,- prodolžal- ničemu ne učilis' I vse pereputali, što ja govoril.

(Master i Margarita)

“그들중에는 마술사, 점성가, 예언자, 살인자들이 기여 있지.”라고 총독이 단조롭게 말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들도 간혹 눈에 떠던데. 이를테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기록에 의하면 너는 사원을 파괴하라고 부추겼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어.”

예수는 말하길 “이 선량한 사람들은 ….. ”

위의 예에서 '예수의 무리들'에 대한 화자의 입장은 각 기 다르게 나타난다. '예수의 무리들'은 총독에게 있어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인데 비해 예수에게 있어서는 '선량한 무리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는 청자에 의해 활성화 된 개체를 지칭하므로 그 대응사로 'tot'이나 'ètot'이 다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응사로 'ètot'이 선택된 것은 다분히 화자의 심리적 근접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ètot'의 이러한 용법은 이미 Sørensen (1992)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위의 예는 한국어 번역서(세계현대 문학전집 10, 삼성출판사)에서 '그 선량한 사람들'로 번역 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그'나 러시아어의 'ètot'가 다 무표적으로 사용되어 번역시 'ètot'을 '그'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원작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심리적 근접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번역이 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일대일 대응식의 지시 사 번역은 비단 러시아어-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어 / 서반어어의 한국어 번역에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4.2 담화구조

지시사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거리감의 차이는 각 대상 에 대한 화자의 관심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담화구 조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용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하여 'this'는 관심의 이동(focus movement) (Isard 1975, Linde 1979, Bosch 1983, Sidner 1986), 'that'은 팝오프된 관 심(popped-off focus)⁸⁾을 각각 나타낸다. 아래의 예는 관심

의 이동을 보여준다.

20.

- 1) One day Bill's father bought Bill a new softball.
 - 2) Bill and his friends played with it daily.
 - 3) Not long after Harry was given a hardball by his uncle.
 - 4) This ball, allowing more speed and accuracy than Bill's, became the boy's choice for all their baseball games.
 - 5) That bothered Bill's father.
 - 6) because he didn't like to see Bill neglect his toys.
- (Sidner 1986:327)

위의 1)-2)에서 화자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a new softball'이며 이것이 2)에서는 인칭대명사 'it'으로 표시된 다. 3)에서 새로운 개체인 'a hardball'이 도입되는데, 이것이 4)에서 'this'라는 지시사를 취하면서 뒤따르는 발화에서는 이 새로운 개체로 화자의 주된 관심이 이동하게 된다. 서반어어에서 관심의 이동은 'este'로 나타난다.

21.

Me encontré con uno de tus amigos la última noche. 어제 네 친구 한 명을 만났어. Bueno, este tío me contó algunas cosas bastante interesantes sobre ti.

그런데 이 친구가 너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절 말 해주던데.

이 경우 'este'는 'ese'로 교체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경우 '이'는 관심의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에서 '그'가 훨씬 더 자주 사용 되는 대응사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Himmelmann(1996)은 무관사 언어 에서 새로 언급된 대상의 대응적 지시표현으로는 지시사 가 선호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의 이동과 관련된 한국 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22.

국제배구연맹(FIVB)은 29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예선리그에서 지난해회 우승팀 쿠바가 10 전 전승을 기록, c조 1위를 차지했고 전년도 2위 러시아와 브라질도 A, B조에서 나란히 8승 2패를 올려 6강에 올랐

8) 팝오프된 관심이란 스택의 최상 위치에 있는 데이터 요소를 인출하여 삭제하는 조작인 팝(POP)에 의해서 당장의 관심권 에서 밀려난 대상을 의미한다.

다고 밝혔다.

이들 3팀은 이로써 오는 7월 12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예선성적을 안고 싸우는 4강리그에 진출했다.

위의 예에서 쿠바, 브라질, 러시아는 담화 첫 발화에서 처음 언급되고 다음 발화에서 화자의 새로운 관심의 중심으로 되는데 이는 '이'를 통해 명확히 나타난다. 특히 관심의 이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의 중심이 있다가 다시 예전의 관심의 중심이었던 '노래'로 관심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23.

『동문선』에는 상실가(橡實歌)라고 하여 탐관오리에 게 수탈 당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가 실려있는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늙은이만 남아 빈집을 지키는데 사흘을 굶다가 산으로 도토리 주우러 간다.』 권세가여 너는 아느냐, 너희들의 진수성찬이 도토리 쭈는 늙은이의 눈 밑에서 흘러나오는 피라는 사실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7년을 고비로 가뭄이 들거나 난리가 난다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기근이 많았다.』 그러나 재난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탐관오리와 세도가라는 인재(人災) 또한 서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 노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위의 예문과 관련한 설문에서 '이'가 '그'로 교체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1, ?3, *2).

러시아어는 관심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 'ètot'이 대용사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24.

No dannij èpizod jabljaetsja očerednoj pričinoj dlja togo čtoby skeptičeski ocenivat' buduščee Soveta Bezopasnosti (OB) OON. ètot organ bolee čem bespolezen, Esli ego ključevye členy s takim prezreniem odnosjatsja k ego rešenijam.

그러나 그 일화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앞날을 회의적으로 보게 하는 예의 이유가 된다. 만일 그 주요 회원국들이 그 결정을 무시한다면 이 기관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위의 예에서 '안정보장이사회'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ètot'으로 표현된다.⁹⁾ 한편 아래의 예는 병사들이 예수

를 총독 앞에 끌고 옴으로써 처음으로 작품에 예수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25.

Prokurator dernul ščekoj I skazal tixo:

-Privedite obvinjaemogo.

I sejčas že s ploščadki sada pod kolonny na

Balkon dvoe legionerov vveli I postavili pered kreslom prokuratora čeloveka let dvadcati semi.

Ètot čelovek byl odet v staren'kij I razorvannyj goluboj xiton.

총독은 불을 부르르 떨고는 조용히 말했다.

-죄수를 끌고 오니라

그리고 이제 정원의 광장으로부터 기둥 아래 발코니로 두 군인이 총독의 의자 앞에 27세 가량의 남자를 데려다 앉혔다. 이 사람은 낡고 헤진 하늘빛 긴 속옷을 입고 있었다.

위의 예에서 흥미로운 것은 해당 예의 선행발화에 선행사 후보로 총독과 예수가 있되 둘 다 비주격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ètot'은 바로 소개된 인물을 지칭하기 위해 선택된 대용사 형태로 이해된다. 즉 격에 준한 지시사의 선택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 소개된 등장인물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이동 중에서도 새로운 관심의 도입의 예로 그 용법이 설명된다.

화자의 관심권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대상, 즉 팝오프된 관심을 나타내는 'that'의 예는 다음과 같다

26.

I 1) A: Well, I was just looking around my house and thinking about the painting that I've done.

2) B: Uh-huh.

3a) A: And the last time that, um, we tackled it, I did the kitchen.

II 3b) And I had gone through a period of depression at one time and painted everything a dark, it was called a sassafras, it was kind of an orangish brown.

4) B: Okay.

5) A: It was not real pretty.

6) B: Yeah.

III 7) A: Anyway, so the kitchen was one of the rooms that got hit with that color.

8) B: Uh-huh, I see.

9) A: [Laughter] So I tried to cover it with white ...

(Walker 1998, 424)

9)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이동하는 경우 러시아어는 언뜻 보아 'tot'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는 관심의 이동보다는 [관점이입]이 작용하는 경우이다.

위의 담화는 전체적으로 집 단장(home decorating)에 대한 것인데, 7)은 'anyway'라는 표현을 통하여 새로운 담화 본질이 시작됨을 알려준다. 3b)에서는 3a)와는 달리 과거 완료가 쓰였고 여기에서 6)까지는 담화본질 III의 배경을 제시해주는 담화본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화구조의 위계상 7)은 3a)와 인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that'은 팝오프된 관심대상(5)의 'it', 즉 4)의 'sassafras')을 지시하고 있다.

서반아어에서는 팝오프된 관심이 'ese'로 지칭된다.

27.

A partir de los doce años, más o menos, nuestros hijos tienden a buscar la amistad de grupos muy cerrados. Se trata de cuatro o cinco adolescents, que se unen en torno a una especie de 'pacto implícito': salir juntos, conversar, compartir aficiones, hablar de sus primeros amores. [...] En principio, estos grupos se unen, sin saberlo conscientemente, para sortear la difícil etapa de la adolescencia y se separan de los adultos. Es común que dentro del grupo se produzca una unificación de la conducta: [...] Sin embargo, existe peligro real cuando algunos amigos que sólo se preocupan de divertirse a toda costa, proponen aventurarse en alcohol, drogas, videos, revistas pornográficas. Aquí van algunos medios para poder apartarle de un grupo, sin hostigarlo: [중략] Buscar videos o revistas con casos humanos que demuestran lo que ocurre cuando una persona se deja arrastrar por los demás. Así, sin separarlo bruscamente de sus amigos, se le irá mostrando que la vida es mucho más que ese grupo de influencia negativa.

12세 이후로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폐쇄적인 또래집단에서 친구사이의 우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비밀협정'같은 것으로 계속되는데 흔히 사춘기에 접어든 네댓 명으로 구성되어서 취미, 첫사랑등에 관한 은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며 외출도 함께 한다. [...] 처음에 이 그룹은 사춘기란 어려운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인들로부터는 멀어진다. 보통 그룹 내부에 공통된 행동양식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어떤 친구가 놀기만 좋아하고 술, 마약,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 등을 통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만 정신을 판다면 분명 당신의 아이에게 해가 된다. 이때, 벌을 주지않고 아이를 그룹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략]

타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이 초래할 수 있는 일을 모은 비디오나 잡지를 찾아서 보여주기. 그렇게 하면 친구로부

터 억지로 떼어놓을 필요없이 인생은 악영향을 주는 그 그룹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위의 예에서 화자는 불량그룹(서클)로부터 자식을 떼어놓는 방법 몇 가지를 나열하다가 이전에 관심의 중심이었던 현재는 관심의 중심 대상이 아닌 '불량그룹'을 반복하기 위해서 지시사 'ese'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팝오프된 관심의 지표로 작용하는 '그'의 예는 다음과 같다.

28.

...가루로 떡을 만들면 도토리떡이 되고, 밀가루와 섞어서 도토리국수를 만들며, 꿀에 재어서는 도토리마식, 목을 만들면 도토리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 식품 중에서 단연코 인기있는 것은 도토리묵이다. 이 도토리묵은 열량이 아주 적으므로 비만중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 이 노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젊은 자식 내외는 전쟁터로, 혹은 부역을 하러 나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할 노인은 식량을 수탈당하여 하는 수 없이 그 뚝은 도토리라도 주으려 산으로 가는 고단한 생활상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노래이다. 만일 산에 도토리라도 없으면 이들은 무엇으로 연명했을 것인가... (KAIST 한국어 corpus)

위의 예에서 '그'는 이전에 관심의 중심이었던 '도토리'가 이제 더 이상 관심의 중심이 아닌데 재언급되는 경우, 즉 팝오프된 관심을 나타내는 표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⁰⁾ 앞서 언급되었듯이 관심의 이동이 확실한 경우 "이도토리묵은..."에서 이가 그로 대체되지 않는 데 비해 팝오프된 포커스의 경우 "그 뚝은 도토리라도..."에서 그가 이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설문 결과 설문자 모두 대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답함 ??, *5). 이는 한국어에서 지시사의 용법은 담화구조 내에서 관심의 중심과 관련된 화용적 기능으로 상당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어에서 팝오프된 관심은 'этот'으로 나타난다.

29.

Dom nazyvalsja domom Grivoedova na tom osnovanii, čto budto by nekogda im vladela tetka pisatelja- Aleksandra Sergeeviča Grivoedova. Nu vladela ili ne vladela- my togo ne

10) 또 다른 설명은 '뚝은'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znaem. Pomnitsja daže, čto, kažetsja nikakoj tetki-domovladelicy u Griboedova ne bylo... Odnako dom tak nazывali. ...

A važno to, čto v nastojaščee vremja vladel ètim domom tot samyj massolit.....

그 집은 한때 작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그리보예도프의 친척 아주머니 소유였다는 근거로 그리보예도프의 집으로 불렸다. 실제로 그 소유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기억에는 그리보예도프에게는 그 어떤 친척 아주머니도 없는 것같은데... 그러나 그 집은 그렇게 불리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집은 바로 그 마솔리프 명의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응하는 한국어 번역서(세계현대문학전집 10, 삼성출판사)에서 'ètim domom'이 '이 집'이라고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ètor'이 그 직시의미에 있어서 근칭이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이'에 상응하기 때문에 쉽게 야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지시사의 대응사적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팝오프된 관심의 지표로 '그 집'이 더 적절하다.

한편 앞의 예문 8에서 '그 교수'는 분명 담화구조에 있어 팝오프된 관심임에도 'tor'이 그 대응사로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어에서 지시사 결정요소로 심리적 거리감이 담화구조 보다 더 우위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시사의 대응적인 용법에 있어서, 영어와 서반어에서는 근칭 / 원칭 지시사가 비교적 대등하게 분포하는 반면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는 특정한 한 지시사가 유표적인 분포를 보인다. 한국어의 원칭 지시사 '그'나 러시아어의 근칭지시사 'ètor'은 각각 '이'나 'tor' 대신 올 수도 있어 그 용법이 무표적이다.

한국어는 '이'가 중심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가 인지상태 및 관심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영어의 'this'와 유사성을 보이는 하지만 주로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사용영역이 영어의 'this'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러시아어의 'tor'은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관점이입]의 지표로 작용한다. 러시아어는 팝오프된 관심의 경우에도 'ètor'이 오기 때문에 'tor'은 원칭지시사로서 영어의 'that' 보다 그 사용영역이 훨씬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반어어는 근본적으로 'este(이) / ese(그) / aquel(저)'의

삼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용례상, 영어의 'this'는 'este'에 해당하고 'ese', 'aquel'이 함께 'that'에 해당하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대응사로서 'aquel'은 대조맥락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아 'ese'에 비해 그 용법이 매우 제한적이며 영어의 'that'이 사용되는 곳에 'ese'를 대응시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때문에 거의 이원체계에 가깝다. 영어와 서반어어의 경우 선행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사와의 거리에 준해 'this-that', 'este-aquel'이 차별화되고, 청자활성화에 준해서는 'that / ese'가 각각 선호되며, 심리적 거리감에 있어서는 'this / este'가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내며, 담화구조에서 관심의 이동은 'this / este'를, 팝오프된 관심은 'that / ese'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어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거나, 비주격형으로 활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에 한해 'tor'이 선택되고, 나머지는 'ètor'이 선택된다. 한국어는 심리적 근접성이나 관심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가 선호되고 나머지는 '그'가 무난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심리적 근접성이나 관심의 이동, 화자 활성화를 나타내는 영어 / 서반어어의 'this / este'는 한국어의 '이'에 대응되지만 선행사 결정시 선행사의 거리에 준해 선택되는 'this / este'는 한국어의 '이'에 전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러시아어의 'ètor'은 심리적 근접성이나 관심의 이동, 화자 활성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응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대응적 용법의 지시사가 무표적 / 유표적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은 영어나 서반어어와 대조하여 볼 때, 이 두 언어에 관사가 없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즉 한국어, 러시아어에서는 특정한 한 지시사가 영어나 서반어어의 관사가 담당하는 한정성 지시표현 기능까지를 다 담당함으로써 무표화된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김명자 (1999), 현대러시아어의 지시표현 연구. <러시아어연구> 제9권 1호.
- [2] _____ (2000), 지시대명사 연구: 대응적 용례를 중심으로 <슬라브어 연구> 제5권.
- [3] 김일용 (1982),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호
- [4] 심재기, 이기용, 이정민 (1984), <의미론 서설> 집문당
- [5] 임홍빈 (1998), [국어문법의 심층구조2] 태학사.
- [6] 장경희. 1980. 지시사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제16권 제2호

- [7] Berger, Tilman and Daniel Weiss (1987), "Die Gebrauchsbedingungen des Anaphorikums "tot" in substantivischer Verwendung", *Slavistische Linguistik*. Munich, pp 9-93.
- [8] Diesel, Holger (1999), *Demonstratives: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 [9] Enfield, N.J. (2003), "Demonstratives in Space and Interaction: Data from Lao Speakers and Implications for Semantic Analysis." *Language*. Vol 79. 82-117.
- [10] Givon, T. (1992), "The grammar of referential coherence as mental processing instructions." *Linguistics* 30. 5-55.
- [11] Gundel, Jeanette, Nancy Hedberg and Ron Zacharski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Vol 69. 274-307.
- [12] Halliday, M.A.K and Ruqaiya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London and New York.
- [13] Himmelmann, Nikolaus P. (1996), "Demonstratives in Narrative Discourse: A Taxonomy of Universal Uses", in Barbara Fox ed. *Studies in Anaphora*, John Benjamins.
- [14] Kibrik, Andrej A. (1996), "Anaphora in Russian Narrative Prose: A Cognitive Calculative Account", in Barbara Fox ed. *Studies in Anaphora*, John Benjamins.
- [15] Linde, Charlotte (1979), "Focus of Attention and the Choice of Pronouns in Discourse", in Talmy Givon ed., *Syntax and Semantics* vol.12. Academic press: New York.
- [16] Naylor, Kenneth E. (1983), "On Expressing 'Definiteness' in Slavic Language and English", in Michael Flier ed.,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1. Slavica:Columbus.
- [17] Nørgård - Sørensen, J. (1992), *Coherence Theory: The Case of Russian*. Mouton:Berlin and New York.
- [18] _____ (1998), "Pronouns and their reference in Russian". *Scando-Slavica*. Vol.44.
- [19] Padučeva, Elena Viktorovna (1982) *Referencial'nye aspekty vykazyvaniya (semantika i sintaksis mestoimennyx slov)* RAN: Moskva.
- [20] Sidner, C.L. (1986), "Focusing for Interpretation of Pronouns", in Michael Brady and Robert C. Berwick eds. *Computational Models of Discourses* MITpress.
- [21] Strauss, Susan (1993), "Why 'this' and 'that' are not complete without 'it'." *CLS*. 29.
- [22] Walker, Marilyn A., Aravind K. Joshi, and Ellen F. Prince (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Clarendon press: Oxford.